

## 선원장들 서울로 '법문 나들이'

첫 초청대법회... 즉석 '묻고답하기' 도

### 15일부터 조계사에서

"한국 선불교에서는 더 이상 인가해 줄 스승이 없다?"

지난 해 서암 청화 율하 서암 덕암 스님 등 해방 이후 한국불교의 선종을 드높인 1세대 선사들이 잇달아 원지에 떠날 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선맥을 잇고 있는 차세대 선지식들이 곳곳이 산문을 지키고 있다'이다.

조계사(주지 지홍)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불교 전통 선(禪)을 말한다-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는 조계종의 공식 수행법인 간화선(禪話)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법석(法席)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의 2세대 대표를 대표하는 선사들이 1000여년 동안 면면히 흘러 온 법등(法燈)을 대내외에 드러낼 이번 대법회는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80분간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된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를 지낸 고우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이 입제법회를 열고 설정 스님(수덕사 수좌)이 '돈오란 무엇인가'를 주제

로 회향법회를 맡는다. 무어(봉화 촉서사 주지) 대원(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합주(법주사 총지선원장) 현산(화엄사 선등선원장) 지환(조계종 기본선원장) 영진(전 기초선원장) 해국(남국선원장) 현웅(미 버클리 육조사 주지) 도현(쌍계사 금당선원 선택) 스님 등이 초청됐고,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경허 만공 선사'의 가르침'을 주제로 법문한다.

설법의 주제는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드는 법' '선과 깨달음' '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일체유심조' '선 수행의 요체' '수처자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한국 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등 간화선의 핵심을 담고 있어, 한자리에서 선의 요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법문 후 즉문즉답(卽問卽答)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갖는 이번 법회는 승속을 불문하고 선문답을 주고 받는 무차선(無遮辯) 법회의 성격도 갖는다. 서암 스님과 진제 스님이 주최했던 무차선대회 정신을 계승한 이번 법회는 평소 대중법문을 자제해 온 선원장 스님들이 주도하는 법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편으로 계속

## 참선 배우고 싶다 65%, 수행한다 17%

배우고 싶어도 지도자·공간 부족  
조계종 포교원 '신도 수행 실태...' 설문결과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어렵기도 하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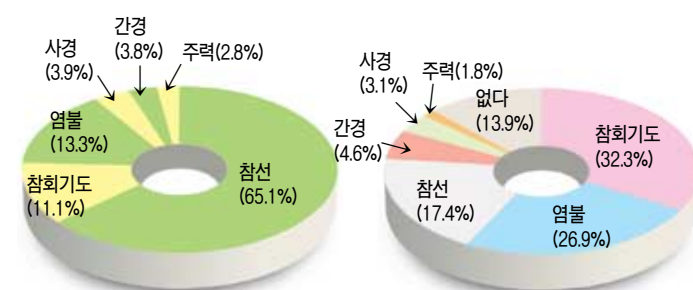
참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열의는 매우 높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참선 수행을 하는 불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수행지침이나 지도자, 마땅한 수행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1월 28일 발표한 '신도 수행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설문조사는 신도들을 위한 간화선 수행지침과 수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4~10월, 불교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 재학생과 졸업생(포교사) 1,9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도들의 수행 실태에 대한 조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65.1%)이 '참선'을 가장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수행법으로 꼽았다. 염불(13.3%)과 108배, 3천배 등 절하기를 포함한 참회기도(11.1%)가 그 뒤를 이었고, 사경(3.9%) 간경(3.8%) 주력(2.8%)을 선택한 불자는 소수에 그쳤다.

그러나 가장 자주 실천하는 수행법 두 가지를 순서대로 골라 달라는 질문에서는 참선(17.4%)보다 참회기도(32.3%)와 염불(26.9%)을 선택한 불자들이 월등히 많았다. 참선 수행을 경험한 불자들의 경우에도 조계종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간화선(17.0%)보다는 염불선(21.8%)과 단

전호흡(19.6%)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 체계 미비'와 '스승(지도자) 부재'라는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에 불자들이 간화선보다는 다른 수행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수행법을 선택한 동기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26.2%)라고 응답한 불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이들



지도 받고 싶은 수행법

전호흡(19.6%)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 체계 미비'와 '스승(지도자) 부재'라는 고질적인 문제점 때문에 불자들이 간화선보다는 다른 수행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수행법을 선택한 동기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26.2%)라고 응답한 불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이들

가장 자주 하는 수행법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님·도반 등 주변의 권유' (24.9%) '나의 근기에 적합해서' (22.2%)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설문에 응한 불자들은 수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체계적인 수행지침이 없어서' (27.7%)를 '일상생활이 바빠서' (47.5%) 다음으로 꼽았다. 수행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법회를 통한 지속적 안내 및 체계적인 교육' (51.6%)과 '사찰(단체) 수행 프로그램의 상설화' (24.5%)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주관한 포교연구실 박희승 차장은 '신도들을 위한 간화선 수행지침과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 육성이 종단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올 한 해는 신도들이 쉽게 접하고 간화선 수행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는 수행지침과 매뉴얼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enny@buddhapia.com

새이사장 현해 스님  
동국학원 만장일치 추대



전 월정사 주지 현해(사진) 스님이 동국학원 새 이사장에 추대됐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회는 1월 27일 열린 제196회 이사회에서 현해 스님을 제21대 이사장에 추대했다.

1968년 중비 1기생으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해 종합대 승려 이후 동문으로는 최초로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된 현해 스님은 58년 월정사에서 만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5년 자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73~80년 일본 고마자와(駒澤)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중앙승가대 교수와 부학장(1983~1985년) 등을 거쳤으며 조계종 중앙종회 제 3, 7, 10대 의원을 역임했고, 2002년부터 동국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권형진 기자



불교지도자들은 1월 29일 조계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2004년에는 국민화합과 경제안정이 실현되기를 서원했다. 사진은 법회에 이어 새로 개관한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열린 개관축하연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 '국민화합·경제안정' 기원

**중단협 신년하례 법회**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 진각종 효암 총무원장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백장기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등 불교지도자와 불교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1월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국민화합과 경제회복을 발원했다.

**현대불교 제9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2월 14일 오후 2시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제창, 정관계 인사 3백여명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법어에서 "세상이 어지럽고 괴로운 일이 많을수록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기쁜 곳은 종교계"라며 "올 한해 국민들의 고통을 감싸 안고 희망을 주는 불교가 되자"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할**

대중가요... 구절구절 애꿎은 사랑타령... 금방생중이 소리가

비록 곳노래라도 찬불가를 부르면 마음이 순화...

국기동 운운사

그림·조태호

- 운문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보십시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수의회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수의회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수의회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수의회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潤月)**은 제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넘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속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대,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진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후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고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 3) 금년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오.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孝** 대광수의  
서울시 중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